영암군-현대삼호重 '상생의 악수'

郡 "선박제조 등 기업활동 행적적 지원 강화"

社 "환경보전 등 지역 공동체 의식 동참키로"

영암군과 현대삼호중공업이 상생의 손을 잡았다.

김일태 영암군수와 강수현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는 16일 영암군수실에서 만나 플로팅 도크(바지선 형태의 부유식 도크) 허가 취소 탄원 등 양측 간 감정적 앙금을 잊고 상생 협력 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서남권의 최대 선박 제조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의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수현 현대삼호중 대표이사도 "현대삼호중공업이 영암군 기업의 일원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과 환경보전 문제 등에 더욱 애정을 갖고 지역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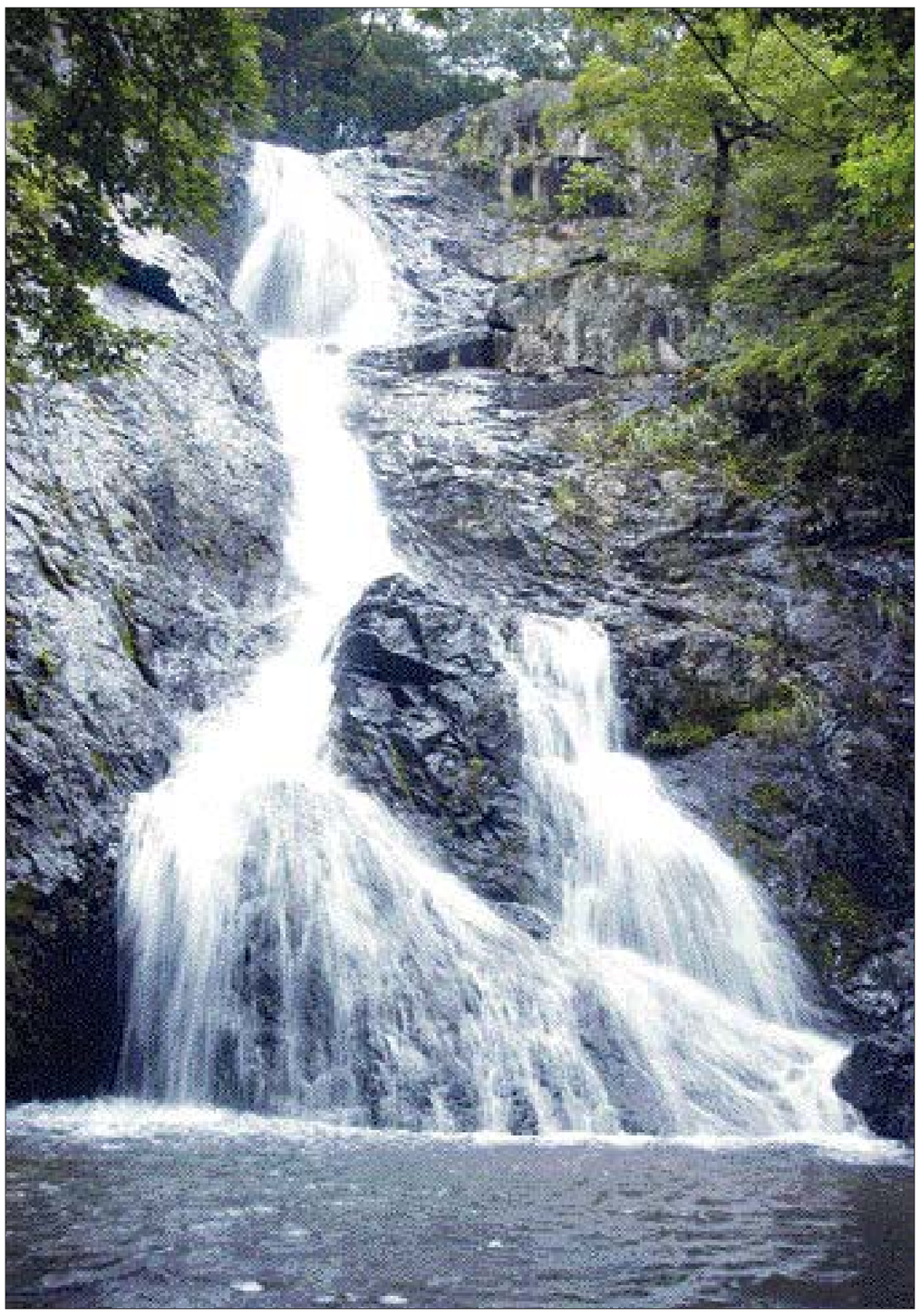
김 군수와 강 대표는 "조만간 실무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기업성장 동력 등 상호 발전 방안 등을 마련해 가장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조재현 목포지방해양청장이 영암군청을 방문, 앞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키로 합의해 영암군과 해양수산부 간 갈등도 일단락됐다.

김일태(사진 왼쪽) 영암군수와 강수현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가 16일 영암군수실에서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사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항만 오염이 우려된다'며 주민 2만명의 서명을 받아 현대삼호중 플로팅 도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삼호중공업,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마찰을 빚어왔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용연폭포 시원한 물줄기 담양군 용면 가마골 용연 폭포가 시원스런 물줄기를 내 뿜고 있다. 영산강 발원지인 가마골은 길이가 300~600m인 여러 개의 깊은 계곡으로 이뤄져 있어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담양군제공〉

국내 첫 해변 승마장 신안 임자도에 문연다

24일 개장 … 승마체험도

오는 24일 신안군 임자도에 국내 최초로 국제 해변 승마장이 문을 연다.

임자도는 너비 200m, 길이 12㎞에 달하는 국내에서 길이가 가장 긴 모래사장을 보유하고 있어 해변 승마장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승마장 개장식에는 전국 승마동호인 12명으로 구성된 승마단체가 꾸민 평보와 속보, 구보 등 해변 승마 퍼레이드와 함께 말 타고 해변 달리기 등 다채로운 승마 체험 행사가 열린다.

신안군은 오는 2010년까지 40㎞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변형 승마코스와 승마장을 개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승마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광주~완도 고속도 조기착공해야"

감사원 조치에 완도 군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최근 감사원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 재검토조치를 내리자 완도 군민과 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완도군번영회, 청년회 등 40여개 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국도 13호선과 중복된다는 단순 논리를 앞세워 감사원과 건설교통부가 이 사업의 수요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기 완공을 요구했다.

이어 "완도~담양간 국도 13호선은 공사여건을 볼 때 앞으로 10년이 지나야 준공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신지대교와 고금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기본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특히 해남~강진구간 공사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완도 사회단체는 전국 향우와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고흥 우도분교에 컴퓨터 2대 기증

(주)신일종합시스팀

한전 검침협력사인 (주)신일종합시스팀(사장 김홍일)이 지난 10일 고흥군 남양면에 소재한 우도분교(분교장 이은영)에 컴퓨터 2대를 기증했다. 〈사진〉

전교생이 5명에 불과한 우도분교는 학교 컴퓨터가 낡아 인터넷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 소식을 접한 (주)신일종합시스팀 광주·전남본부(본부소장 양동영)와 고흥사업소(소장 배선옥)에서 새 컴퓨터를 기증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제주(祭酒)조난사건 항일 기념관'

보성향교, 건립 추진

보성향교(전교 박해철)가 '제주(祭酒)조난사건 항일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향교 제주조난사건은 지난 1921년 문묘용 제주를 일본관리가 밀주로 규정, 봉인 압류한데 격분해 유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들 가운데 10명을 구속,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해 전국 160여개 향교가 유림 궐기대회를 열고 제주 압류사건에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당황한 일제는 결국 주세령을 개정, 향교에서 사용하는 제주에 한해 양조를 허용했다.

현재 보성향교에는 격문 등 당시 유물 40여점이 보관돼 있고 다른 자료들은 역사박물관에 보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성향교는 지난 13일 충효회관에서 유관기관 및 지역유림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 조난사건 항일 기념관 건립 추진대회'를 개최했다.

보성향교 관계자는 "보성향교 문묘용 제주조난사건은 유림이 일본에 대항해 봉기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념관을 세워 애국정신과 선비정신을 기리는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토종 복분자 '정금' 시험재배 성공

산림과학원 8년 연구끝 개가

신품종 '토종' 복분자가 곡성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했다.

산림과학원은 8년여의 연구 끝에 '정금'이라는 복분자 신품종을 개발, 지난 2005년 곡성 84개 농가 20ha에서 시험재배에 들어가 최근 수확을 마쳤다.

정금은 현재 복분자주 원료로 널리 재배되는 북미산 복분자보다 평균 당도가 2-3브릭스 높은 12브릭스 이상인 데다 포기당 수확량도 두 배 가까운 3㎏이나 된다. 또 병해충에도 강해 이번에 수확된 정금은 3년간 제초제를 포함한 어떤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았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